

위격의 연합(Hypostatic Union)

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만, 어려워서 잘 다루지 않는 위격의 연합- Hypostatic Union 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 :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 :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1. . Hypostatic Union 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두 인격간에 충돌이 없이 완전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격의 연합, Hypostatic Union, 이 말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Hypostatic 이란 말은 그리스어 hypostasis 에서 온 말로 ‘인격의, 위격의’ 뜻입니다.

이 hypostasis 는 삼위일체를 말할 때 쓰는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 one Ousia three **Hypostasis** 의 hypostasis-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Hypostatic Union 라는 말은 **위격의 연합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연합하여 하나의 위, 하나의 person, 하나의 hypostasis 를 이루고 있다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Hypostatic Union 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 위격적 연합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본성에서는, 그 본성에 속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에서는 신성만 나오고, 인성에서는 인성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에서 인성의 인격이 나올 수 없고, 인성에서 신성의 인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신성에서는 신성에 속한 인격이 나오고, 인성에서는 인성의 인격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른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본성이 서로 다른 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의 위격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 또 십자가 상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모든 행동, 의사 표현을 하나의 자아의 표시인 “나” 로 표현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말하노니’ 하셨다든가, 나의 ‘인성이 목마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행동 양식이나, 자신에 대한 표현 양식은 언제나 단일한 자아의 표시인 “나” 입니다.
단일한 hypostasis, person, 단일한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신성으로서 하신 행동, 인성으로 하신 행동이 있으면서도 행위의 주체는 언제나 단일한 인격인 ‘나’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으로 또 성육신한 사람으로 행한 두 종류의 일을 구별하면서도, 이 행동이 하나의 동일한 위격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without confusion, without conversion, without division, without separation 연합하여 하나의 위격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돈없이, 변화없이, 나뉘임이 없이, 분리가 없이연합하여 하나의 위격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서로 다른 본성-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의 인격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without confusion, without conversion, without division, without separation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신성에 속한 인격, 인성에 속한 인격이 어떻게 단일한 인격을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 6:21)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말하노니’ 하셨다든가, 나의 ‘인성이 목마르다’ 하시지 않고, 어떻게 단일한 위격의 표현인 “나” 로 자신을 표명하실 수 있느냐 ,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주후 451 년 칼세돈 공의회에 예수님안에서는신성과 인성이 without confusion, without conversion, without division 있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후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단일한 인격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단일한 위격의 표현인 “나” 로 자신을 표명하실 수 있느냐 ,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이 확실히 정리되기 까지 230 년이 걸렸습니다.

주후 680 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예수님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의 서로 다른 두 본성이 각각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단일한 인격- 하나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선언입니다.

이것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단일한 위격의 표현인 “나” 로 자신을 표명하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위격적 연합, Hypostatic Union 입니다¹.

3.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Hypostatic Union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언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 신학에서도 간단하게만 다루고 지나 갑니다. 저는 Thomas C. Oden 의 조직 신학, J.N.D. Kelly 의 Early Christian Doctrine, 김장식의 고대 교회 교리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모범이요, 목표이신 둘째 사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두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의 인격으로 삶을 살아 가셨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교리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 생활에 적용하면 영적 성장에 큰 진보가오게 됩니다. 중생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 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성공 여부가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한번 듣고 던져 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자꾸 반복하여 들어 자신의 영적 자양분으로 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서로 다른 두 본성이 각각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단일한 인격- 자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의지만 나옵니다.

인성이 신성에 온전히 굴복하여, 예수님으로 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인격만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위격적 연합입니다.

이 위격적 연합을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 :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므로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다’ 는 말로 표현하셨고,

¹. 김장식 교리사 p. 201

요한복음 8 :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와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 고도 하셨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은 성령안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단일한 위격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지배함으로 예수님께로 부터 표출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위격일 뿐입니다.

우리 다같이 다음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 :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 :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태로 강림하는 성령 충만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4.Hypostatic Union 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왜 중요한가?

먼저 위격의 연합, Hypostatic Union 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한 기독교인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기독교인은 성령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 인들은 신성이 인성의 옷을 입고 살아 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이런 인격의 정체성은 자연인의 인격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연인은 육만 있지만 중생인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중생인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롬 8 장).

이처럼 기독교인의 이런 인격의 정체성은 자연인의 인격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중생인의 인격의 정체성에 대하여,

로마서 8 :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성과 인성이 조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는 ‘어떤 인격의 정체성, identification 을 가지고 살아 가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말은 중생인은 여태까지 살던 육에 속한 인간의 삶의 스타일, 자연인의 삶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지 않으면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인이 성공적 삶을 위해서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이 중요하지만, 중생한 기독교인의 성공적 삶을 위해서는 중생인 자신의 **인격의 정체성을 이해 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중요합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성공된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성일위, Hypostatic Union 입니다. 이것이 Hypostatic Union 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왜 주요한가를 이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4. 우리의 인격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공부 처음부터 제시하고 있는 질문인 우리의 인격의 정체성, 인격의 identification 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째 사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되듯,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인격이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의 인격은 같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인의 인격의 정체성, 인격의 identification 을 지시해주는 말이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한 새로운 인간의 유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 사도는 이것을 둘째 사람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중생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회복된 새로운 인류의 identification, 모델을 지시합니다.

고린도후서 5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중생인은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전처럼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중생인의 인격의 정체성, 인격의 identification 을 지시해주는 말이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구절에서 첫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은 땅의 것,
육의 것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둘째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자연인을 말하며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중생인을
말합니다(롬 8:9). 영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육에 속하였던 우리가 둘째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인의 인격의 정체성은 둘째 사람이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인이 둘째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일치할 때까지 그의 삶은 struggling 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 :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 내가 아버지를 본받아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은 같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임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 하나가 아닌, 인격적 하나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고백한바, 예수님께 속한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의 연합!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의 연합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로마서 6 장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심(갈 2:20 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롬 8 장에서, 갈 5:25)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갈라디아서 5 :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른 곳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덧입었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고도 말합니다.

저의 카리톨럼 안에서는 이것의 교리적 기초를 구원론시리즈 강좌, 주기도문 강해, 하나님의 나라, 사도 신경 강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전 중앙일보에서 세명 대학의 석좌 교수인 김용욱 교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솔직히 속으로 분노합니다. 대한 민국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리되지도 않은 생각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퍼져 갈 때, 그 폐해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립니다.

그 사람의 칼럼을 있는 그대로 옮기면,

요즈음도 나 도울을 ‘길 잃은 양’ 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인 양 외친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돌아오란 말인가? 참된 신앙을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簡) 것이다. 그리고 매우 쉬운(易)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라” 는 것은 매우 명료한 기준이 있다.

교회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매주 일요일마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교회에 나올 것.
- 2)다니는 교회나 관련된 교회단체에 열심히 십일조나 그 이상의 연봉돈을 낼 것. 다다익선. 은혜충만.
- 3)신약정경 27 서의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고,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것.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의 신앙 기준인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김용욱 교수는 이어서 말하길,

만약 내가 이 세 조항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상 어디에서도 나를 훌륭한 크리스천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이 세 조항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이런 것입니까?

대한 민국의 최고 석학이라는 사람이 이런 수준의 말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고 공부하고 알려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 :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립보서 3 :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 :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이 되는 것!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신앙 목표이며, 그의 인격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김 용옥 교수가 제공하는 신앙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넌센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달려 가는 것!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퓌대를 향해 달려 간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목표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격적 연합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사신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위의 삶인 것입니다.

이성일위의 삶을 온전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인류의 진정한 목표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살때 인간의 숙원인 인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종교가, 철학자들이 추구하는바 자기 구원, 자아에서의 해방이 이성일위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길 잃은 양인 도올 김용욱이 추구하는 바가 이성일위를 이루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안에서 찾아 집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의 시조이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격의 정체성이 되며,우리 신앙의 참된 목표가 됩니다.

중생인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왕적 통치가 중생인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왕이 되어 우리 인격과 생활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왕이 되어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다스린 사람의 원형을 우리는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신성에 인성이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의 struggleing 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의 인격을 이룬 것,
이것이 Hypostatic Union 입니다.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의 인격을 이룬 사람, 그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안에서
이루어진 둘째 사람 입니다.

이 둘째 사람의 인격과 일치 하는것, 그 분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5. 우리에게 적용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이런 이성일위에 의한 위격적 연합의 상태는, 중생인인 우리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지시해주는 말입니다. 자연인과는 다르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루 하루를 살 것인가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이 우리의 인성을 완전히 지배함으로 둘째 사람 예수님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 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옛사람의 연합,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6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중생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인격화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인격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옛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 :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 :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 :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지속적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이성일위를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 하세요
(twitter 안에서 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 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